

☎ 보도일시: 2019. 11. 20.(수) 조간

❖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

<인터넷 2019. 11. 19.(화) 15:30 이후>

과 장 김종윤 (044-202-7307)

서기관 최승훈 (044-202-7316)

☎ 총 8 쪽

사무관 진영훈 (044-202-7313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2020년 1월, 「국민내일배움카드」 시행

-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여 불편 없이 이용 가능
-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
- 5년간 총 300~500만 원 지원,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 가능

[현장 목소리]

- ▶ 고용센터 상담원 'ㄱ': '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업자 대상 장기 훈련이 적합한데, 재직자 신분으로는 허용되지 않아 안타까워요.'
- ▶ 특수형태근로종사자 'ㄴ': '근로자 신분은 아닌데, 재직자 카드 대상인지, 실업자 카드 대상인지 불분명하네요.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'
- ▶ 훈련생 'ㄷ': '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늦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받았는데, 부정 훈련으로 처리됐어요.'

□ 내년부터 '국민내일배움카드'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.

- 고용노동부(이재갑 장관)는 11월 19일, '국민내일배움카드'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.

□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자영자·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,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
광범위한 훈련 소외계층

- 특고, 자영자, 불완전취업자 등 훈련 사각지대
- 고용형태에 따른 훈련격차

실업·재직 간 이동에 대응 곤란

- 실업·재직 변화에 따른 카드 변경
- 시기를 놓칠 경우 부정훈련 문제 가능

평생교육훈련 요구에 한계

- 1년 단위 카드 발급으로 평생훈련체계 설계 어려움

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혁신이 필요한 상황

- 이에 지난 4월, 정부는 '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'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,
-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'직업능력개발혁신 TF'(위원장: 경기대 강순희)을 구성·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·발표하게 됐다.

□ 이번에 마련된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		
	현 행	개 편
지원대상	· 실업자 · 재직자 (중소기업·비정규직 중심)	·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(공무원, 사학연금대상자, 재학생 등 제외)
유효기간	· 실업자 1년, 재직자 3년	· 5년 (5년 후 재발급 가능)
지원내용	· 200~300만원	· 300~500만원

①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·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

-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.



②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(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)

- 실업자, 재직자, 특고, 자영자(일정 소득 이하)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
-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.



③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, 지원 규모는 확대

- 유효기간을 '1~3년'에서 '5년'(재발급 가능)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
-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'200~300만 원'에서 '300~500만 원'으로 높인다.
-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(HRD-Net)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, 수강 과정명,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④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

-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,
- 국가기간·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.

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

-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·운영*하고 (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)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 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.

* 역량이 검증된 기관 중심으로 기업수요를 고려한 질 높은 훈련 제공, 훈련기관·협약 기업이 원하는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 보장

-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,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,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.

⑥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

- 실업자,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,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,
- 저소득 재직자(예: 근로장려금 수급)에게는 자부담률 50%를 경감할 예정이다.

이렇게 좋아졌어요!



누구나 신청 가능

단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재학생,
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
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



유효기간 5년
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 관계 없이
5년간 사용가능



훈련비 지원

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 등 저소득층 500만원,
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액 지원



개인맞춤 수강

상담절차를 거쳐
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 수강



HRD-Net 실시간 확인

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
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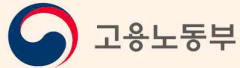


자부담 비율 동일 적용

실업자, 재직자, 자영업자
자부담 비율 동일

- 이재갑 장관은 “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”이라며,
- “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.”라며,
- “앞으로 신산업·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,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ی겠다.”라고 강조했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진영훈 사무관(☎044-202-731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



2020년 1월

‘국민내일배움카드’ 도입

○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

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

* 다만, 공무원, 사학연금 대상자, 재학생,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,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



2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

3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
*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*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 지원

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
*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
*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

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

5 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

○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

내일배움카드 신청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

훈련과정 수강신청

장기훈련과정 :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
단기훈련과정 : HRD-Net을 통해 신청 가능



<1>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?

- 실업-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·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 제도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
 - * 예)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 과정이 적합하지만,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
 - * 예) 경제활동상태 변화(실업⇌재직)에 따라 '카드 갈아타기' 필요,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
- 한편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음

<2>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지?

-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(93.4%)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,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(300만 원)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음
 - * '14~'18년 1인당 계좌 사용: (300만 원 미만) 93.4% (300~500만 원) 4.1% (500만 원 이상) 2.5%
- 한편,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였음
 -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, 자부담 면제
 - 국가기간·전략직종훈련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사업 등 특화 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
- '국민내일배움카드'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~8천 유로(640~1,022만 원), 싱가포르의는 매년 500 달러(43만 원)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

<3>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?

- ☐ 국가기간·전략직종훈련(現 122개 직종) 등을 제외한 일반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그 수준은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하였음

구 분	직종평균 취업률(2016~2018년 종료 과정)				
	70%이상	60~70%	50~60%	40~50%	40%미만
일반훈련생					
취성패 2유형	15%	25%	35%	45%	55%
취성패 1유형	0%	0%	30%	40%	50%
			0%	0%	20%

- 실업자 기준으로는 자부담(안) 평균이 올해와 유사하도록 마련
(2019년 평균 32.6% → 2020년 예상 평균 32.9%)
-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%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바
(나머지 직종은 0~20%),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자부담 적용
- ☐ 한편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음
- 실업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,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% 경감

<4>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지?

- 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「직업능력심사평가원」(한기대 소속)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, 구체적 과정은 HRD-Net을 통해 확인 가능
- ☐ 취미,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,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

<5> 고용센터의 상담·심사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지?

- ☐ 현재, 실업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4주 내외 훈련 상담 후에 발급하고, 재직자는 별도 상담 없이 발급하고 있는 바, 내년 부터는 일부 개편이 있음
- ☐ 내년에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온라인(HRD-Net)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,
 - 장기훈련(140시간 이상)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·심사 절차(2주 소요)를 거친 후 수강 가능

<6>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등 문제는 없는지?

- ☐ 2020년 관련 예산은 8,787억 원으로써 전년보다 12.4% 증가한 규모임

구분	주요사업	규모	비율
고용보험	국가기간전략직종, 일반계좌제 훈련 등	7,808억 원	88.9%
일반회계	4차혁명선도인력양성, 일반고미진학자 훈련 등	979억 원	11.1%
소계	-	8,787억 원	100%

- 고용보험과 일반회계 간 합리적인 분담 원칙*을 마련하여 편성, 분담비율은 '19년과 유사

* 현행) 고용보험 가입(이력) 여부 → 개선) 사업 목적·대상의 특정 여부

- ☐ 국민들에게 훈련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되, 훈련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해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,
 -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 상담·심사 절차는 지속·강화할 예정인 만큼, 급격한 재정 증가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